

# “개혁의 승리 위해 앞장”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서 대표발기인 연설 나서  
전국 시도별 권역별 평화광장도 순차적 출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소 소극장(KGIT센터 4층)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위의 조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0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참관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연설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봉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기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

정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 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 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 ‘청년 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민주평화광장은 오늘 행사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전국 시도별 권역별 민주평화광장도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소 소극장(KGIT센터 4층)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반부패 청렴실천 · 국민권익 증진 협력 강화

도·권익위, 협약 체결

전북도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 등이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상기자

아울러,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과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등은 2021년 전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임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최

코로나19 극복 전북도 · 교육청 추경예산안

감질 행위 근절 ·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3일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한다.

1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주요 현안 관련 건의·결의문을 발표한 예정이다. 또한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 보충 교부금 확정 교부

에 따른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각각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전라북도 감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자치경 지방 교육재정 보충 교부금 확정 교부

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8건(조례안 22, 예산안 3,기타 3)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달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 벗어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공무직 조례 제정 과정 ‘미온적’”

최영심 도의원 제기

전북도가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에 타당한 이유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2일 “도청 정규직 전환과 정 중 정부 방침과 노동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작년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수용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런 악순환 근절과 공무직원의 부당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직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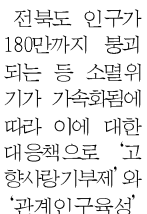
또 최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전북 도청은 청소미화 시설 노동자들에게 피켓시위와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했

다는 이유로 28명을 견책, 감봉 징직까지 했다”며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을 노동시간 중 활동으로 간주해 내린 이 처분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복성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늦게나마 지난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전라북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온것에 환영 한다”며 “도민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청, 전북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대표 기관이 자행한 일이라는 것에 전북도는 책임감과 중립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가져야”

문승우 도의원, 인구 소멸위기 가속화 대책 제기



전북도 인구가 180만까지 붕괴되는 등 소멸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북도의 경우 최근 180만명까지 붕괴됐으며, 현재의 제로섬게임에 가까운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며 그 대안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육성에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관계인구’란 용어는 지난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

된 용어로서, 쉽게 말해 관광도 거주도 아니지만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히 가고시마현 같은 경우는 고향세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로 유치해 고향주민카드 발급, 고향주민회의 개최, 체험투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쿠이현 등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관계인구를 늘려가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고향세와 더불어 청년들에게 지역살이 경험을 제공해 정주를 유도하며, 도농간 상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지역 정보를 발신하는 것도 관계인구 육성의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하며 “전북도가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13일 열리는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